

債務國의 外債, 國際收支調整, 所得分配와 庶民生活

李 天 杓*

<目 次>

- I. 序
- II. 債務國의 國際收支 調整努力 比較
- III. 政策運營과 所得分配
- IV. 各國 緊縮政策의 相對的 效率性
- V. 韓國經濟에 대한 敎訓

I. 序

이 研究의 目的은 外債大國인 南美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三國이 外債를 갚거나 償還을 延期해 나아가는 過程에서 어떠한 政策的 對應을 하였는가를 살펴 보고, 그러한 대응에 따라 所得分配과 一般 庶民들의 生活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마찬가지로 外債大國인 우리經濟의 政策運營에 대한 敎訓을 찾아 보려는 데 있다.

이들 세나라나 우리나라가 <表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外債를 가지게 되었고, 外債의 償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原因은 大同小異하다. 1960年代 後半과 1970

<表 1> 四國의 外債規模와 利子負擔

단위: 百萬달러

	브 라 질		멕 시 코		아 르 헨 티 나	
	外 債	利子/輸出	外 債	利子/輸出	外 債	利子/輸出
1978	52,285	24.5	33,946	24.0	12,496	9.6
1979	58,907	31.5	39,685	24.8	19,034	12.8
1980	68,354	34.1	49,349	23.1	27,162	22.0
1981	78,580	40.4	72,007	28.7	35,671	31.7
1982	87,580	57.1	85,000	39.9	43,634	54.6
1983	96,500	43.4	90,000	36.7	45,500	58.4
1984	101,800	36.5	95,900	36.5	48,000	52.0

자료: CEPAL, "Preliminary Overview of the Latin American Economy during 1984," January, 1985.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副教授. 이 論文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4年度 研究費의 支援을 받았음.

〈表 2〉 三國의 失業率, 인플레이션 및 經濟成長

단위 :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失業率)								
아르헨티나	2.8	2.8	2.0	2.3	4.5	4.8	4.1	4.0
브라질	—	6.8	6.4	7.2	7.9	6.3	6.7	7.5
멕시코	8.3	6.9	5.7	4.5	4.2	4.1	6.9	6.3
(CPI增加率)								
아르헨티나	150.4	169.8	139.7	87.6	131.2	209.7	433.7	675.0
브라질	43.1	38.1	76.0	95.3	91.2	97.9	179.2	194.7
멕시코	20.7	16.2	20.0	29.8	28.7	98.8	80.8	59.2
(1人當 GDP 成長率)								
아르헨티나	—	—	—	-0.9	-7.7	-6.6	1.4	0.9(-11.8)
브라질	—	—	—	-4.8	-3.8	-1.3	-5.3	1.3 (-8.9)
멕시코	—	—	—	5.5	5.1	-3.1	-7.7	-0.3 (-6.3)

자료 : CEPAL, "Preliminary Overview of the Latin American Economy during 1984", January, 1985.

주 : ()안은 1981~84년 평균.

年代 및 1980年代의 國際經濟與件이 開發途上國으로 하여금 중래의 經濟成長을 지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外資를 導入하지 않을 수 없게끔 變化하였는 바, 이때 開發途上經濟중 相對的으로 輸出을 많이 할 수 있어 國際金融市場에서 相對的으로 높은 信用評價를 받을 수 있었던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外資를 導入할 수 있었고, 그러하지 못한 나라들은 外資를 導入하지 못하여 經濟成長의 정체를 맞보게 되었다. 그 結果 外資를 도입하지 못한 나라들은 外債가 거의 없는 貧國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 反面, 外資를 도입할 수 있었던 나라들은 막대한 外債를 지니게 되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정도 經濟成長을 지속하여 開發途上國 中에서는 相對的인 富國이 될 수 있었다.

論理的으로 마지 보면 물론 이들 外債大國들도 1970年代에 있어 外債導入을 自制하고 經濟成長을 희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선 經濟成長을 지속하려고 하였기에 1970年代의 激動期에 外資를 導入하여 經濟成長을 위한 原資材와 資本財를 輸入하는, 이른바 融通(financing)의 길을 택했고, 國民所得이 下落하게 되고 生活水準이 크게 떨어지게 됨을 감수하는 소위 適應(adjustment)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 外債國이 오늘날과 같은 外債를 지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들이 適應의 길을 택하지 않고 融通의 길을 택한 것을 批判할 수 있다.

아무튼 이들이 融通의 길을 選擇하여 外資를 導入하여 經濟成長을 계속한다는 原則을 굳히게 되자 이들은 外資를 계속 導入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들의 外資導入은 外資導入을 규율하는 制度의 事情, 특히 당시 外資導入의 주된 파이프·라인이었던 國際金融市

〈表 3〉 國際經濟의 主要 利率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美國의 短期利率	5.3	7.2	10.1	11.4	14.0	10.6	8.6	9.5
美國의 長期利率	7.4	8.4	9.4	11.5	13.9	13.0	11.1	12.4
LIBOR	6.1	8.8	12.1	14.2	16.8	13.2	9.6	10.8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	5.8	7.4	8.7	9.2	9.6	6.0	3.8	3.8
美國의 CPI	6.5	7.9	11.3	13.5	10.4	6.2	3.2	4.3
韓國 平均 GNP 디플레이터	7.5	7.6	8.0	9.2	8.7	7.2	4.9	4.1
韓國 平均 CPI	8.4	7.2	9.0	11.8	9.9	7.4	4.9	4.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5.

場의 變動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國際金融市場에서 利率이 높아지게 되면 이들이 導入하는 外資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利率을 무는 資金이 될 수 밖에 없었고, 國際金融市場에서 貸借契約의 約定期間이 짧아져 長期金融 보다 短期金融이 성행하게 되면 이들의 借入도 短期借入의 性格을 많이 띠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外債의 增大는 形式的으로 보면 이러한 國際金融市場의 變化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外債增大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要因은 國際金融市場을 그렇게 變化시킨, 이른바 1970年代의 二次에 걸친 石油價의 上昇, 1970年代中盤과 1980年代의 先進經濟圈의 景氣沈滯, 경기침체에 따라 나타나게 된 이들 輸出品의 貿易條件의 惡化 등에서 찾아질 수도 있다.

우선, 石油價의 上昇과 關係物價가 오르는 것은 非產油 開發途上國에 대해 큰 負擔이 되었다. 石油의 消費는 性質上 價格非彈力的인 것이기 때문에 經濟成長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石油의 輸入을 줄일 方法이 없었으며, 이들 非產油 開發途上國은 石油價의 上昇에 대응하게끔 石油購入에 따른 石油輸入代錢을 높게 支拂할 도리 밖에 없었다.

특히 1960年代의 美國의 過多支出에 遠因을 가진 汎世界的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先進國의 스태그플레이션이 1973/74년에 들어 石油價의 上昇과 더불어 심한 경기침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도 外債大國으로 하여금 外債를 많이 갖게 하는 要因이 되었다. 先進經濟의 경기침체로 開發途上國의 선진經濟에 대한 輸出이 크게 위축되게 되었던 바, 종래 開發途上國중 연속적으로 輸出을 하고 있었던 이들 外債 開途國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다. 勿論 이러한 선진경제의 침체가 이들로부터의 資金需要를 줄여 開途國으로 하여금 國際金融市場에서 融通을 위한 資金을 借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一面도 없지는 않다.

非產油 開發途上國의 交易條件이 惡化되게 된 것도 外債增大의 한가지 重要요인이 된다.

非產油 開發途上國은 先進經濟에 주로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을 輸出하고 있었던 나, 先進經濟가 침체에 빠지게 되자 이들의 輸出品에 대한 需要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는 價格彈力的인 이들 輕工業製品의 價格이 상당한 정도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石油價의 上昇으로 새로이 富國이 된 石油輸出國들의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들은 輕工業製品價格의 下落에 하등 대응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石油價 上昇과 더불어 각종 原資材價格이 오르고 또 獨寡占的 市場性格을 반영하여 資本財價格이 오르게 됨으로써 非產油 開發途上國이 輸入하는 原資材와 資本財의 輸入價格은 각각 上昇하게 되었다. 非產油 開發途上國에게는 輸入價格은 오르고 輸出價格은 떨어지 交易條件의 惡化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종래와 같은 量을 輸出하고 輸入하면서도 外換收入은 적고 外換支出은 많아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 研究는 1970年代 開發途上의 外債國이 지고 있는 外債의 增加分중 80%餘가 國際的 與件變動에 따라 結果된 것이고, 나머지 작은 部分이 開發途上經濟의 獨自의 政策運營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¹⁾

이미 1970年代에 상당한 外債를 지게 된 이들 外債 開發途上國들은 1980年代에 들어 國際 金融市場의 實質利子率이 크게 上昇하게 됨에 따라 償還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要因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

첫째, 1970年代의 汎世界的 인플레이션에 따라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豫想值가 키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豫想值의 上昇을 반영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名目利子率도 상당히 높은 水準에 달하게 되었다. 예컨대 名目利子率의 一種인 3個月 LIBOR는 1977년 6.1%에 불과하다가 1980년에는 14.2%, 1981년에는 16.8%의 水準을 보이기까지 높아졌다.⁽²⁾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 시작된 美國의 政策轉換을 계기로 하여 인플레이션率이 많은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美國은 通貨借給을 줄여 인플레이션率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였고, 通貨供給의 減縮에 따라 美國의 國內利子率이 높아지게 되어 美國으로 資本이 流入되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資本流入에 근거하여 美國은 막대한 經常赤字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通貨緊縮과 더불어 財政赤字를 꾀했다는 것이 美國의 높은 利子率 및 막대한 經常收支赤字와 대응하고 있다.

美國의 이러한 政策追求는 美國內에서 인플레이션率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었다. 通貨緊縮이나 經常赤字에 따른 海外 生産物의 流入이 모두 美國의 인플레이션率을 떨어 뜨리는

(1) William R. Cline (1983)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5.

요인으로 되었다.

世界에서 美國이 최대의 輸入國이고 1980年代初 美國만이 相對的으로 경기침체를 안보인 先進國이었기 때문에 美國에 가장 많은 輸出을 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다른 나라들은 美國의 이러한 低인플레이션政策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市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美國으로 輸出하는 製品의 價格을 낮추거나 價格引上率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렇게 價格上昇이 制限된 가운데 해당 品目을 계속 生産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라들에서 生産되는 다른 製品들의 價格上昇이 抑制되어야 했다. 輸出品의 價格은 억제되나 기타 다른 製品의 價格의 上昇은 방임되어 輸出品의 生産이 中斷되고 기타 다른 製品만이 生産되는 事態가 豫防되기 위해서는 輸出品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製品의 價格도 抑制되어야 했다. 그 결과 특히 美國에 많은 輸出을 해야 하는 外債 開發途上國들은 低인플레이션政策을 실시하거나 낮은 平價切下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美國과 기타 여러 나라들의 低인플레이션率 政策은 世界 全體적으로 인플레이션率을 떨어뜨리는 方向으로 作用하였다. 그 결과 1980年代에 들어서서 인플레이션의 豫想値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實際의 인플레이션率은 떨어지는 현상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것과 대응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貸借去來에서의 名目利率은 계속 인플레이션의 豫想値를 반영하여 높게 나타나나 名目利率에서 실제의 인플레이션率을 빼어 計算되는 實質利率은 상당히 높은 狀況이 展開되게 되었다.

둘째, 外債國의 債務構成에 있어 長期債務의 比重이 줄어들고 短期債務의 比重이 점차 增大되게 되었다. 1970年代 汎世界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때에 國際金融市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時時로 減價되는 債權의 實質價値를 보전하게 하는 方途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必要에 따라 變動利率附 契約을 체결하는 것과 貸借의 契約期間을 될 수 있는대로 短期化하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었다.

變動利率附 契約(flexible interest rate loan contract)이란 貸借契約에 게재되는 利率을 계약시 名目的으로 확정하지 않고 國際金融市場의 어떤 利率에 連動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국제금융시장중 런던市場에서 銀行間 貸借去來에 대한 이자율인 LIBOR를 이용하여, 貸借契約時의 利率을 $LIBOR + \alpha$ 의 方式으로 決定하는 것이다. 이때 LIBOR는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金의 需要와 供給에 따라 變動하게 되기 때문에 비록 各國의 事情에 따라 α 가 契約時에는 固定되는 경우에도 $LIBOR + \alpha$ 는 可變的이 된다. 더구나 LIBOR는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需要가 늘어나면 올라가고 供給이 늘어나면 떨어질 것이기에, $LIBOR + \alpha$ 는 國際金融市場의 需給事情을 間接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金의 貸借契約이 점차 變動利率附의 形態를 취하게 되고 이때의 變動利率의 實體要因이 되는 LIBOR가 인플레이션의 豫想值를 반영하여 높은 水準에서 작은 上下變動을 하게 되자, 이러한 方式에 의거하는 開發途上國의 借入에 대한 利率은 國際金融市場의 사정에 대응하여 상당한 시간 높은 水準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다음 貸借의 契約期間이 短期化되었다는 것은 종래 7年 내지 5年을 貸與하던 資金을 이때부터는 5年 내지 7년의 기간으로 貸與하게 된 것을 뜻한다. 變動利率制를 택하게 되면 貸與된 資金에 대한 利率이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더불어 減價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貸與된 資金의 元金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減價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도리가 없다. 여기에서 궁여지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契約期間을 짧게 하여 元金이 減價될 소지를 줄여 보려고 하게 된 것이다.

國際的인 貸借去來에 있어 約定期間이 短期化되어 債務國의 債務가 점차 短期債務化하게 되고 또 利率 決定方式이 變動利率 方式이 되면서 國際金融市場의 利率(例컨대 LIBOR)이 實質的으로 높아지게 되자 1980年代의 外債國은 갑자기 늘어나게 된 元利金償還의 義務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惡化된 交易條件과 保護貿易主義의 장벽 때문에 先進經濟國의 輸出도 충분히 增加하지 않아 元利金償還을 위해서 다시 새로이 外債를 저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外債國에 대해 이때까지 貸與를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國際金融市場의 각종 銀行들이 外債國인 開發途上國에 너무 過多한 貸出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批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더 이상의 貸與가 위축되게 되었다. 換言하면, 1980年代에 들어서자 마자 外債大國들은 元利金償還을 위해서도 더 貸與를 받아야 할 必要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貸與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國際的 商業銀行들은 더 이상 貸與를 하지 않으려는 대세를 취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위 國際金融危機라고 지칭된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外債開發國이 이미 약정된 대로 元利金を 상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元利金を 받을 것을 豫定하고 運營되던 國際的 商業銀行들의 經營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預金引出의 要求 등에 대한 어떤 한 銀行의 支給不能이 다른 銀行의 支給不能을 연쇄적으로 가지 오게 되는 극악의 사태가 豫見되고 우려되게 되었다.

1980年代의 이러한 어려움은 1981年 폴랜드의 外債償還不能과 차후의 극적인 상환연기, 1982年 멕시코의 외채상환유예선언과 극적인 상환연기조치 등으로 실제화되기도 하였다. 단 이때의 극적인 조치 이후에는 外債償還의 延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연기조치에 따른 새

로운 契約에서의 約定期間이 보다 長期化되는 變化로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상환연기의 계약에 즈음하여서는 반드시 外債國의 政策運營에 대한 다소간의 속박이 부가되었다. IMF가 매개기관이 되어 外債國이 스스로 外換을 벌여 外債를 상환하게끔 유도하고 강제하는, 소위 ‘허리띠 졸라매기’ (belt-tightening)가 부가되었다.

이러한 ‘허리띠 졸라매기’는 外債國으로 하여금 外債를 보다 많이 벌어들이거나 작게 쓰도록 하는 것이기에 形式的으로 보아 國際收支調整努力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각개 外債國은 자국의 經濟社會的 實情에 따라 다소간 相異한 國際收支調整努力을 피하게 되었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輸入을 減縮하는 데 力點을 두었다면 다른 나라는 財政赤字를 줄이는데 보다 큰 力點을 두어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外債三國의 國際收支調整努力의 實際를 살펴 보고, 이어 그러한 努力의 相對的 效率性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債務國의 國際收支 調整努力 比較

外債國이 外債를 상환하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資本收支赤字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資本收支赤字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經常收支黑字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相應한다. 나아가 經常收支黑字는 여러가지 方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우선 經常收支計定으로서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를 상기하고 나서 開發途上國의 입장에서 貿易外收支의 黑字를 꾀한다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한 것을 알아, 貿易收支의 黑字를 目的으로 할 수가 있다. 貿易收支의 黑字를 위해서는 輸出을 늘이는 길을 강구할 수도 있고 輸入을 줄이는 길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음 國際收支論에서의 吸收接近法(absorption approach)에 따라 吸收를 줄이는 길을 강구할 수도 있다. 앞에서의 달리, 이때에는 關心의 범위가 經常收支를 構成하는 直接的인 項目에 限定되지 않고 總吸收의 內容이 되는 기타 支出項目에까지 擴張되게 된다. 總支出이란 民間의 支出과 政府의 支出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民間의 支出을 限定하는 것과 政府의 支出을 限定하는 것이 戰略的 重要性을 갖게 된다.

民間의 支出을 줄여야 한다는 必要는 貯蓄을 增大하여야 하겠다는 形式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投資의 모든 財源을 國內貯蓄으로부터 充當하여야 한다는 바람으로 表明되기도 한다.

政府의 支出을 줄여야 한다는 必要는 財政赤字의 縮少와 克服이라는 實質을 가지고 主張

되곤 한다. 民間의 支出이 그의 所得의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달리, 政府의 支出이란 政府의 主된 收入인 租稅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公債의 發行을 통하거나 中央銀行을 통한 發券의 方式으로 赤字財政을 유지하면서 租稅收入 이상의 支出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政府支出을 줄여야 한다는 必要는 赤字財政을 해서는 안된다는 實踐的 內容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한다.

經常收支黑字를 向한 努力은 消極的으로 總吸收를 줄이기 보다 積極的으로 生産을 늘리는 보다 근원적인 形態를 취하기도 한다. 總生産이 늘어나서 그것이 總吸收보다 키지게 되면 經常收支黑字가 실현될 것임을 알고, 總生産을 늘리기 위하여 獨寡占 등의 規制를 통해 經濟力이 集中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技術開發과 革新을 유도하는 각종 制度와 誘因을 정비해 보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方式을 통해서도 充分한 程度로 經常收支黑字를 가지오는 것이 不可能하고, 그에 따라 元利金の 上환을 위한 資本收支赤字를 招來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이 資本을 導入하여 上환 목적에 쓰려고 하게 된다. 즉 前보다 훨씬 積極的으로 資本流入을 꾀하려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外國人의 直接投資나 證券投資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誘因을 제공하고 기존의 規制를 완화하고 철폐하게 된다. 이러한 經路는 소위 資本自由化와 결부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데, 1980年代에 들어 많은 開發國에서 元利金償還을 위한 모든 方途가 모색되게 되면서 이 經路도 큰 關心거리가 되고 있다.

外債國이 元利金償還을 해태하지 않기 위하여 취하게 되는 이상의 方法들을 임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브라질 등 南美의 外債國들이 이상의 經路중 어떤 方途를 선택해 왔는가를 살펴 보자.

1. 브라질

브라질은 이상의 方法중 輸出의 增大와 輸入의 抑制를 가장 重要한 國際收支調整의 方途로 선택해 왔다. 우선 輸出의 增大를 위하여 소위 “小規模의 잿은 平價切下(mini-devaluation)에 크게 의존하였던 바, 月 1% 정도를 계속 平價切下하고 平價切下の 정도가 항상 國內의 인플레이션율을 앞서게끔 유도하였다. 그러나 1984년초의 30% 平價切下가 예시하듯이, 잿고 작은 규모의 平價切下가 不充分하면 대규모 平價切下도 시습치 않는다.

또 輸入代替 및 輸入抑制에 큰 努力을 기울였다. 石油 등의 輸入代替를 위하여 가스알콘 自動車를 開發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며, 輸入을 抑制하기 위하여 投資와 消費를 위한 각종 補助를 줄이거나 없었다. 이에 따라 예컨대 1983년 投資는 實質值로 보아 30%나 줄어

〈表 4〉 三國의 換率變動(期末)

	브 라 질		멕시코		아 르헨티나	
	換 率	平價切下率	換 率	平價切下率	換 率	平價切下率
1978	27.3	105.1	29.60	1.5	.13	61.5
1979	56.0	49.1	30.04	-1.3	.21	19.0
1980	83.5	78.2	29.66	2.9	.25	23.6
1981	148.8	87.3	30.53	248.6	.84	538.1
1982	278.7	269.6	106.43	41.5	5.36	354.3
1983	1030.2	203.0	150.55	25.4	24.35	619.5
1984	3121.0	—	188.75	—	175.20	—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July 1985.

들게 되었고, 補助를 받지 못하는 公企業 등의 써비스料金の 現實化가 불가피하게도 되어 있다. 輸出會社의 金利에 대한 사실상의 補助는 아직 남아 있으며, 연료비에 대한 보조도 1983년까지 지속되었으나, 민의 輸入에 대한 補助는 조만간 없이지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강력한 輸入抑制에 의해 貿易收支의 黑字를 실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總吸收의 抑制에는 失敗하여 近年 막대한 財政赤字를 지니고 있다. 지난 해에는 月 10% 이상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브라질이 財政赤字를 손쉽게 克服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南美國家들처럼 이 나라도 多小間의 物價連動裝置(indexation)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物價連動裝置중 가장 注目할 것이 公共負債에 대한 것이다. 즉 公共負債에 대한 元金과 利子は 平價切下가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주어진 修正指數(monetary correction index)에 따라 100% 調整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政府에 대한 債權의 實質價値는 언제나 보장되게 되어 있다.

다음, 불가연동장치의 일종으로서 重視되는 것이 低所得階層에 대한 賃金決定에 관한 것이다. 最低賃金の 3倍 이내를 低所得階層으로 규정한 다음 이들의 賃金은 인플레이션率 보다 年 10% 이상 增加하게끔 上向調整되도록 되어 있다. 그 結果 이들의 實質賃金은 항상 상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低所得階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人플레이션을 크게 加速시키면서 所得分配가 惡化되는 것을 상당한 정도 抑制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83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實質賃金을 보장하던 장치도 事實上 배기되게 되었다.

브라질은 종래 여러가지 社會保障的 支出을 해왔으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財政赤字를 줄이는 과정에서 社會保障的 補助도 줄었다. 또 각종 投資事業의 優先順

位를 엄격히 검토하여 政府投資를 줄여 보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의 效果가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위의 要因과 장치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結果 브라질의 財政赤字는 1983년에는 GDP의 17%, 1984년에는 GDP의 16%가 되었다.

財政赤字를 줄이는 方途로서 租稅收入을 늘이는 것은 이미 높은 租稅率을 가지는 브라질에서는 매우 어려운 課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政府支出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고, 위에서 적시한 각종 補助金을 줄이는 것과 서비스의 料金, 手數料를 높이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補助金을 줄이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投資의 優先順位를 조정해 보려는 것이다. 종래 發電施設, 高速道路, 鐵道, 기타 重化學投資가 政府 및 政府關聯機關에 의해 막대하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財政支出과 海外로부터의 借入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건축의 시기에 들어서서는 投資의 우선순위에 대해 더 큰 신경을 쓰고 投資資金을 外國과의 共同投資의 方式으로 마련하게 하여, 投資를 줄이고 外債增加도 억제하게 하는 조치를 택하고 있다.

實質賃金이 줄어들고 또 건축에 따라 GDP가 떨어지게 되면서 輸入도 줄어들게 되었다. 石油輸入을 줄이기 위한 努力과 더불어 GDP의 減少에 따른 非石油輸入의 減少가 있어 輸

<表 5> 三國의 財政

	브라질(10억 쿠르세이크)			멕시코(10억 페소)			아르헨티나(100만 페소)		
	財政赤字	收入	支出	財政赤字	收入	支出	財政赤字	收入	支出
1978	4.9	349.2	344.4	-62.7	323.2	385.9	-168	839	1,007
1979	2.3	509.8	507.5	-101.9	439.1	541.0	-371	2,354	2,725
1980	2.0	1,219.4	1,217.4	-133.7	675.3	808.9	-1,012	4,894	5,906
1981	10.1	2,161.5	2,151.4	-392.3	894.8	1,287.1	-4,415	9,228	13,643
1982	6.6	4,617.8	4,611.2	-1,453.6	1,520.2	2,973.8	-10,558	23,317	33,875
1983	14.3	1,335.5	1,321.2	-	-	-	-	-	-
1984	-	-	-	-	-	-	-	-	-
	G N P	財政赤字/GNP		G N P	財政赤字/GNP		G N P	財政赤字/GNP	
1978	3,680	0.13		2,284.9	2.74		5,118	3.28	
1979	6,149	0.04		2,990.4	3.41		13,774	2.69	
1980	12,760	0.02		4,159.3	3.21		27,987	3.62	
1981	24,616	0.04		5,674.2	6.91		52,368	8.43	
1982	48,225	0.01		8,908.1	16.3		137,561	7.68	
1983	-	-		16,099.9	-		-	-	
1984	-	-		-	-		-	-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July 1985.

주: 이곳에서의 財政關係 資料는 中央政府에 限定된 것임.

〈表 6〉 三國의 貿易收支

단위: 백만 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수출(FOB)					
아르헨티나	8,021	9,143	7,622	7,838	8,700
브라질	20,132	23,276	20,172	21,906	21,960
멕시코	16,066	19,938	22,081	22,235	23,500
수입(FOB)					
아르헨티나	9,394	8,431	4,859	4,120	4,270
브라질	22,955	22,091	19,395	15,434	14,360
멕시코	18,896	24,037	14,434	7,723	10,000
무역수지					
아르헨티나	-773	712	2,763	3,718	4,430
브라질	-2,823	1,185	777	6,472	12,600
멕시코	-2,830	-4,099	7,647	14,512	13,500

자료: CEPAL; IFS, July 1985.

入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貿易黑字를 가져오기 위해서 輸入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食糧 등 必須品의 輸入도 줄어들게 된다. 그에 따라 이들의 價格이 사실상 오르게 되는 바 이것은 庶民生活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때문에 輸入減縮에 의한 庶民生活의 飢渴을 어느 정도 政府支出을 통하여 補償해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문에 政府支出을 줄이는 데에는 근본적인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브라질은 輸入抑制에 크게 의존하는 貿易黑字와 이것을 補償하는 財政赤字를 갖는다는 方式의 국제수지조정 配分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表 6〉에서 1983년과 1984년의 輸入의 減縮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단 1984년에 들어서는 輸出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이것은 지속적인 平價切下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2. 멕시코

멕시코는 1978年 油田의 發見과 더불어 획기적인 高成長戰略을 취해 온 나라이다. 石油의 販賣代額이 크게 늘어날 것을 期待하고 投資를 擴大하였으며 政府支出도 늘었다. 그 결과 1976~77년의 2~3%로부터 1978~81년의 8~9%에 이르게끔 經濟成長率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 政府支出도 1978年 GDP의 32% 水準에서 1982년에는 48%에 달하게끔 커지게 되었다. 또 이때의 財政赤字는 GDP의 17.6%에 달하게끔 높았다.

그런데, 이렇게 過多한 政府支出이 1980년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가 나타나고 石油價格의 下落 기미가 보이는 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기에, 1981년말 753억 달러에 달하는 外債를 가지게 되었고, 1982년 8월 外債償還이 不可함을 公式의으로 선언하게까지 되었다.

이 이후 美國이 중심이 되는 債務調整이 있었고 1983년 이후 멕시코는 安定化政策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조치는 식량에 대한 補助를 지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감축하는 實質을 가졌다.

우선 貿易收支의 改善을 目標로 하여 大幅의 不價切下를 이리만큼 하게 되었고, 總吸收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도 並行하였다. 民間支出을 줄이고 民間貯蓄을 늘이기 위하여 利率를 引上하였고, 政府投資까지를 포함하여 政府支出을 實質值로서 30~40%에 달하게끔 줄였다. 公共部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賃金率이 實質的으로 年 20%씩 下落되고, 最低賃金도 實質值로서 16%나 떨어지게 하는 정도의 低賃金政策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멕시코의 國際收支調整努力으로서 가장 注目할 만한 것은 이 나라가 外國의 直接投資에 대해 매우 開放的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3년 이후의 安定化政策의 일환으로 체결한 IMF와의 協定을 가장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國家로 評價를 받게 된 멕시코는 1984년 9월에는 外債의 半에 상당하는 大規模 債務의 償還調整에 成功하였다.⁽³⁾ 이로써 債務를 계속 調整해야 한다는 壓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利率負擔 및 스프레드面에 있어서도 有利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가 이렇게 債務再調整에 成功할 수 있었던 要因으로는, 南美國中 이 나라가 政治的으로 가장 安定된 나라라는 것, 南美的 및 나라가 소위 債務者카르텔을 形成하여 債務償還을 피해 보려는 기미를 보일 때 이 나라가 이러한 움직임에 단호히 反對하여 ‘良識있는 行動’을 하는 나라로 國際金融界에서 評價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豊富한 資源과 外國人投資에 대한 政策때문에 이 나라로의 投資가 많아져서 채무상황에 대한 이 나라의 潛在力이 커졌다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 등이 있다.

外國人投資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1983년에 「外國投資와 技術移轉」擔當 次官室을 신설하였다. 또 1984년에는 「外國投資에 관한 基本方針」을 發表하여, 外國投資가 우대받는 分野를 밝혔고, 外資와 관련된 수속과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外資委員會에 대해 投資의 妥當性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큰 裁量권을 부여하였다.⁽⁴⁾ 이에 따라 福特自動車, 애플·컴퓨터, IBM 등 有名企業과 기타 中小企業들이 멕시코에 많이 進出하게 되었다.

이상의 變化에 따라 1981년의 130억 달러의 經濟收支赤字가 1983년에는 40억 달러의 經濟

(3) 종래 상환조정의 규모가 1982년까지는 6억 달러내외, 1983년과 1984년에는 30~50억 달러 내외가 되었던 것에 비해 이 때의 조정은 48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종래의 채무조정기간이 1~2년 延期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비해, 이때의 조정은 1985년부터 1990년에 거치는 6년 延期의 實質을 가지고 있다.

(4) 外國人の 出資比率이 그 上限인 49%를 넘게 되는 데 대해 彈力的 運營이 可能하게 되었다.

收支黑字로 바뀌게 되었다. 또 인플레이션率도 年 100% 以下로 되게끔 떨어졌다. (5)

그러나 이러한 강도높은 디플레이션政策에 따라 1982년 이후 GDP成長率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었으며, 특히 食品價格의 上昇으로 庶民生活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단 1984년에 들어서는 3.5%의 經濟成長을 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率도 59.2%로 떨어지게 되었다. (6) 그러나 安定化의 追求와 더불어 庶民들의 基本生活이 어렵게 되면서 사회적 소요도 나타나게 되고, 특히 경기침체, 성장의 정체에 따라 멕시코의 全國 勞動組合이 동요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貯蓄의 증대를 위하여 100% 가까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實質利子率을 零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 이것이 民間投資에 대한 큰 制約이 된다고 하는 批判이 있다. 또 公式部門의 利子率이 이러한 理論의 利子率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事實상의 信用의 配給이 시행되게 되면서 金融部門의 歪曲이 심화되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3. 아르헨티나

南美諸國중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나 멕시코보다 작은 經濟이면서 人種의 同質性을 지니고 있고, 아직까지 外債三國중에서 가장 높은 1人當所得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賦存資源으로 보아 自給自足を 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밖에 안되는 나라의 하나이다. 農產品과 工產品을 꾸준히 產出하여 계속 良好한 貿易收支를 유지해 왔으나, 南美諸國중 先進國이면서 同質的인 人種에 기인하는 停滯性 등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기도 했다.

스페인系 백인만으로 構成되어 있고, 南美의 최남단에서 칠리, 우르과이와 함께 삼각꼴 (cone)을 形成하고 있는 이 나라는 1970年代 後半부터 資本自由化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自由化 (economic liberalization)을 추구해 왔다. (7) 아르헨티나는 經濟의 政府干與에 따른 硬直性을 克服하게 하고 經濟成長을 가능하게 하는 秘法을 經濟自由化에서 찾은 다음, 시카고 大學의 自由保守主義的 처방에 따라 政府의 干與를 最少化하고 市場의 움직임에 따라 모든 價格이 움직이게 하는 政策을 추구해 왔다.

資本市場을 自由化하여 負의 값을 가진 實質利子率을 世界水準의 그것과 비슷해지게끔 變化시키고, 그를 통해 海外貯蓄을 아르헨티나로 流入시켜 投資財源으로 삼게 되기를 원하

(5) 開途國의 허리띠 졸라매기중 멕시코의 그것이 가장 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6) 1982년과 1983년의 經濟成長率도 각각 -0.5%, -5.3%이었고, 1982년과 1983년의 인플레이션率도 각각 98.9%, 80.8%이었다.

(7) 이러한 점에서 스페인계 백인과 土着 인디언들이 함께 살면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해 온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區別된다.

었다. 또 이때 여러가지 製品價格間에 존재하는 歪曲 때문에 流入된 資源이 産業間에 잘못 配分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여 모든 다른 財貨와 서어비스 價格形成의 自由化를 간행하는 것도 不可避한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이러한 自由化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通貨量을 規制하는, 正統的 通貨政策을 추구하였다.

아르헨티나의 資本自由化는 國際金融市場에서 資本이 豊富하여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도 많은 資本借入을 할 수 있었던 1977년에 始發되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늘어나는 勞動力에 대해 일자리를 주기 위해 經濟成長을 必要로 하였으며 1970年代의 國際經濟狀況에서 經濟成長을 하려다 보니 外國의 資本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金融産業이 抑壓되어 있어 經濟成長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나서 經濟를 순리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目的을 가지고 資本自由化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外資를 導入하게 되었다.⁽⁸⁾

資本自由化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利子率이 높아지고, 金融貯蓄은 늘어났다. 그러나 GNP에서 消費를 뺀 것으로 計算되는 總貯蓄은 늘지 않았다. 總貯蓄이 늘지 않음과 대응하여 投資도 별로 늘지 않았다. 이것은 資本自由化 때문에 海外의 資本이 流入되어 海外貯蓄이 증가함에 대응하여 國內貯蓄이 그만큼 줄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結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몇가지 理由에 기인한다고 分析된다.

(i) 資本自由化 이전에는 銀行으로부터의 信用이 配給되면서 消費金融이 사실상 不在하여 消費가 抑壓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資本自由化와 더불어 一時的으로 신용이 많아지게 되자 消費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國內貯蓄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消費財 增加와 더불어 武器買入도 크게 增加하였다.

(ii) 資本自由化에 따라 外國資本을 導入할 때 실제로 資本導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銀行 등 金融機關과 大企業들이었다. 반면에 中小企業은 직접 外國資本을 도입할 수가 없었기에 金融機關들이 導入한 資本을 轉借해 쓸 수 밖에 없었다. 南美 開途國의 二重性의 特性이 투영되어, 資本自由化가 시행되고 나서도 아르헨티나의 資本市場은 同質的이고 競爭的인 것으로 定着되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過程에서 金融機關을 소유한 經濟그룹에 대한 偏重貸出도 나타나게 되었다.

(iii) 消費金融需要, 企業의 實物投資를 위한 資本需要에 따라 資本市場이 超過需要狀態

(8) 브라질이나 멕시코처럼 高度成長을 해야 하는 나라의 처지와 그러한 점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아르헨티나의 지지 사이의 차이는 이들 국가의 失業率을 비교함으로써도 이해될 수 있다.

가 되자 利率이 上昇하게 되어 海外的 利率을 크게 上廻하게 되었다. 높아진 利率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事業은 資金回轉이 빠른 短期的 投資와 資本利得(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投資에 限定되기에, 懷妊期間이 長期인 生産의 投資는 中止되고 그 대신 投機가 盛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늘어난 金融貯蓄은 모두 短期性 金融證券을 媒體로 한 것이었다.

(iv) 資本自由化를 계기로 하여 모든 것에 대한 干與를 줄였으면서도 아르헨티나는 換率에 대해서만은 미리 宣稱된 程度에 따라 小規模 平價切下를 하는 政策을 고집했는데, 이에 따라 換率의 上昇이 다른 價格의 上昇을 못 따라가 平價切上의 豫想値는 언제나 零보다 크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外資의 導入이 中斷되질 않았다.⁽⁹⁾

(V) 많은 財貨價格이 오르고 投機가 盛行하며 生産的 投資가 위축되고 있던 現象이 一時的인 現象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경계되지 않았다.

요컨대, 위에 摘示된 異常現象을 아르헨티나는 1980년까지만 해도 資本自由化 및 經濟自由化에 따르는 一時的인 副作用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르헨티나에게도 高利率, 先進經濟의 景氣沈滯, 開途國의 交易條件의 惡化라는 1980年代의 衝激이 밀어닥치게 되어, 資本自由化를 계기로 導入한 外資에 대한 상환의 압력에 當면하게 되었다. 실상가상으로 이 나라는 1982년에는 英國과 포크랜드戰爭을 치르게 되었으며, 戰爭期間 및 戰爭後 상당한 기간 동안 外資를 거의 導入할 수가 없어 사태는 더욱 惡化되었다.

이러한 變化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經濟成長率에 있어 1981년 -7.7%, 1982년 -6.6%을 보였고, 消費者物價增加率이 1981년 131.2%, 1982년 209.7%를 보였으며, 失業率도 80年以前 2% 수준에서 81년 이후에는 4%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82年 戰爭 이후 軍事政權이 무너지게 되고, 1984년 9월 알폰신大統領의 民間政府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IMF의 協調를 받으며 한편으로는 外債調整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緊縮을 피하게 되었다.

이때 緊縮政策의 內容은 IMF가 介入된 다른 경우와 비슷하게, 財政赤字를 줄이고, 實質賃金を 調整하며, 平價切下를 하는 것이 되었다. 종래 각종 非能率과 인플레이션의 源泉이 되어 왔던 財政赤字를 줄여, 인플레이션率을 낮추면서 政府活動을 대폭 民間에 이양할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기관 등이 누리던 獨占 내지 準獨占의 地位를 停止시키며, 輸出稅를

(9) 동시에 미리 豫定된 程度에 따라 시행되는 平價切下와 自由市場價格에 의해 좌우되는 인플레이션率 사이에 격차가 점차 커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資本自由化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 때문에 經濟自由化에 대응해야 할 適應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민하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줄어 輸出을 促進하고 關稅를 줄여 지나치게 보호받던 輸入代替產業의 能率性提高를 강제 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努力은 1970年代 後半 經濟自由化를 하고 通貨量만을 規制하러던 保守主義的 態度보다 훨씬 具體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構造的 歪曲을 인정하고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解消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漸進的 努力으로 쉽게 대처할 수 없을 만큼 構造的 硬直性이 심하다. GDP의 50%에 이르게까지 커진 財政과 그것에 기인하는 각종 國家의 干與, 民間의 創意性의 쇠퇴, 輸出을 抑制하고 非能率을 방치하는 貿易制度, 借入을 하되 投資를 막고 海外로의 資本逃避를 조장하는 金融資本制度 등이 단시일내에 正常化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극복하려는 具體的 努力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安定化의 成果는 IMF와 約束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이 1983년에는 433.7%, 1984년에는 675.0%나 된다는 것이 國際收支調整에 있어 급격한 政策轉換을 한 것이 가져온 副作用의 일부로서 해석되고 있다.⁽¹⁰⁾

III. 政策運營과 所得分配

이상에서 볼 때 外債國의 國際收支調整政策의 運營은 각국의 經濟·社會的 狀況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輸出을 늘이는데 주력해온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外債國은 모두 經濟成長에 力點을 두고 있는, 相對的으로 우수한 開發途上國들이었다. 이들은 經濟成長을 통하여 雇傭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 所得分配을 改善할 수 있게 되기까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예컨대 브라질에서는 年 120萬, 멕시코에서는 年 80萬 등의 새로운 勞動力이 나타나고 있다고 推定되고 있고, 이러한 신규 노동력에 대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年 8~10%의 高度成長이 꼭 必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일자리를 얻어 최소한의 所得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되어야 所得分配가 더 이상 惡化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1970年代 이들 南美 外債國은 經濟成長을 出發點으로 삼고 經濟成長을 위해 必要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 外資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國家는 이런 意味에서 소위 '外債에 의한 成長'(debt-led growth)를 의식하면서 政策을 運營해 왔다고 할 수

(10) 그러나 經濟成長은 1983年 2.8%, 1984年 1.9%로 저조하였다.

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外資의 導入에 대해 큰 警戒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 經濟에 豊富한 資源이 부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응하는 成長潛在力을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멕시코의 石油, 브라질은 水資源과 기타 鑛物資源, 아르헨티나의 自給自足を 賸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資源이 이들의 外債에 의한 成長에 대한 內的 外的인 擔保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借用한 外資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모두 妥當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異論이 많다. 브라질의 水力發電, 高速道路, 멕시코의 重化學投資 및 아르헨티나의 武器購入 등은 잘못된 外資使用의 좋은 例로 적시되고 있다. 또 借入한 外資가 短期資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러한 資金으로 시작한 투자사업 회임기간이 短期間인 것이 되어야 하는 데, 外債國의 모든 投資가 資金源의 性質과 대응하는, 적절한 投資이었는데도 의문이 많다.⁽¹¹⁾

南美諸國은 社會構造와 經濟構造에 있어 二重性 또는 複合性이 심한 나라들이다. 이러한 점이 1950年代의 構造主義者(structuralist)들의 通貨主義者(monetarist)와의 論爭이나 1960年代 이후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 등을 통해 널리 揭示되어온 바가 있다.

이들 開途國에서는 內的으로 資源의 移動이 충분히 신축적이지 못하고, 市場이 여러 개로 分割되어 있으며, 여러 部門에서 需要와 供給 사이에 隔差가 많다. 때문에 이들은 하루 아침에 政策的 운영을 개선하여 經濟發展을 이룰 수가 없고, 投資의 調整과 制度改革을 통해 점진적으로 構造의 不均衡을 克服해 가면서 經濟成長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通貨供給을 급속히 줄이고, 財政赤字를 抑制하며, 價格을 自由化하고 平價切下를 자주 시행하는 通貨主義的 처방은 本質的으로 충격 요법이기 때문에 構造的 不均衡의 점진적 극복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점진적 개선을 방해하는 副作用을 가져 오게 될 수도 있다고 여긴다.

이들 나라에서는 高所得階層의 政治·社會的 세력이 매우 컸고 經濟·社會的 主要 決定을 主導해 왔다. 그러면서 이들의 利害關係는 外國의 資本과 밀착되어 있어 이들은 사실상 自國內 異邦領(enclave)를 形成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어 왔다. 이러한 실태의 이면에서 低所得 賃金所得階層은 經濟成長이 정체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되면 實質所得이 減少되어 最低의 生活을 위협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根本狀況에서 低所得階層의 飢渴을 防止하는 最善의 方案으로서 前述된대로 經濟成長 優先政策이 추구되었다. 또 이들의 最低生活을 보호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食料品에

(11) 이 문제는 후술되는 國際金融의 不適合성과 연결된다.

대한 政府補助金を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작게 줄인다가나, 實質賃金を 유지하게 하기 위해 低所得 賃金階層의 賃金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指數를 이용하는 物價連動制가 適用되곤 하였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 經濟成長이 정체되고 外債를 상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긴축정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二重構造를 가진 社會의 각종 副作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前述된대로 低所得階層의 實質所得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줄어들게 된 것이 重要하다. 다음, 디플레이션政策 내지 緊縮性 安定化의 追求와 더불어 市場메카니즘에 보다 크게 의존하려는 開放化의 努力이 나타나게 되면서 經濟活動을 規制하는 각종 法規가 완화 내지 폐지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高所得階層의 資本逃避가 현격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推理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지만 外債國에 대한 資金의 流入은 國際金融市場을 통하여 商業主義 베이스 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國際金融市場의 必要를 반영하여 이러한 資金은 短期的이고 비교적 높은 金利를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外債國들은 그들에게 外生의인 國際經濟의 變화에 즈음하여 종래 추구하던 經濟成長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資金이나마 借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資金이란 外債國들이 資金을 必要로 하게 될 根本要因에 비추어 볼 때 그 性格上 適合한 것이라고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本質上 短期資金을 가지고 融通을 하는 것은 차후 가까운 時日內에 反轉될 國際收支赤字의 補填을 위하는 때에나 正常化될 수 있는 것인데, 開發途上國의 이 때의 資金需要는 차후 反轉될 性質을 가진 短期的 性格의 것이 아니었고 더구나 融通의 必要를 줄이기 위하여 開發國이 스스로 어떤 效果的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性格의 것도 아니었다.

論理的으로 보면, 外債國에의 資本流入은 商業銀行을 통한 短期高利의 資金이기 보다는 IBRD와 같은 國際的 開發金融機關을 통한 長期低利의 開發資金이어야 했다. 그러나, 1970年代에 이러한 資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商業메이스의 資金이 利用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不適合性 때문에 1983年 이후 債務償還의 延期 또는 roll-over가 보다 本格化되고, 商業資金의 高金利의 負擔을 결과적으로 낮게 하는 탕감 또는 利子上 限制(interest cap)의 생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南美 外債國의 外債問題는 이미 經濟的인 次元을 넘어선 國際政治的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美國國務長官이었던 키신저博士는 西半球開發計劃 또는 새로운 形態의 마샬計劃에 의하여 이 問題를 풀어야

할 것으로 診斷하기도 하는 것이다.⁽¹²⁾ 키신저는 여기에서 外債償還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庶民生活이 크게 惡化되는 것을 방지하다가 南美的 民主主義體制 自體가 붕괴될 것을 특히 걱정하고 있다.

商業銀行을 이용하여 資本을 導入할 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法制的 事項이 1980年代에 들어 外資의 自發的 流入을 유도하려고 장치하게 된 각종 資本自由化 관련 조치와 結合되어 자본도피를 유발하고, 그로써 二重構造社會의 跛行性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開發途上國이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資本을 借入할 때 開途國의 民間企業이 先進國의 企業처럼 스스로의 能力으로 借入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開途國의 借入은 開途國 政府와 金融機關이 借入을 한 후 이것을 民間部門에 轉貸하거나, 民間의 借入에 대해 開途國 政府와 金融機關이 保證을 하는 內容을 반드시 包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法律的으로 開途國의 債務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政府 및 金融機關의 債務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資金이 일단 民間에 轉貸되거나 移讓되어 民間에 의한 使用이 自由롭게 되거나, 그러한 資金이 民間에 의해 어떻게 活用되었는지는 충분히 감독되지 못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外資의 流入을 위한 제반 資本自由化 조치가 행해지게 되면서, 開途國으로의 外資의 流入은 쉬워지게 되지만 同時에 開途國으로부터 밖으로 外資가 流出되는 것도 自由로워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資本自由化 관련 조치에 따라 外債國으로부터 資本이 流出될 수 있는 與件이 制度的으로 마련되게 되었다.

여기에 허리띠를 줄이는 安定化政策이 감행되게 되면서 換率이나 利子率이 보다 可變的이 되어 開途國으로부터 資本逃避가 실현되게 되는 經濟的 實濟的 要因이 造成되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安定化政策은 貿易收支의 改善을 향한 平價切下와 貯蓄의 增大를 목적으로 하는 利子率의 引上을 주요한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平價切下나 利子率의 引上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이때의 平價切下나 利子率의 引上은 상당한 기간 지체되다가 어떤 극적인 時點에 이르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가지기 쉬웠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平價切下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대규모의 利子率 調整이 시행된다고 소문이 도는 직전에 특히 ‘리드와 랙’(lead and lag)의 方式⁽¹³⁾에 의한 資本流出이 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所得分配의 惡化와 더불어 社會狀況이 不安해지게 되자 上流階層들의 美國으로

(12) 『東亞日報』, 1985. 6. 24. 키신저컬럼.

(13) 리드와 랙 方式에 의한 資本流出이란 차후 支拂해야 할 外資를 미리 支拂하고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外資를 나중에 받아 들임으로써, 法規를 위반하지 않고 事實상 資本을 流出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 자본도피가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게도 되었다.

安定化政策에 따라 所得分配은 3가지 경로를 통해 惡化되게 되었다.

첫째, 輸入을 급격히 줄이는 表面에서 輸入品の 價格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나타난 投資財價格上昇은 成長을 지체시켜 일자리를 줄이게 되었고, 消費財價格上昇은 生活水準의 下落을 초래하였다.

둘째, 財政赤字縮少의 努力에 따라 補助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生活補助金을 받는 極貧階層의 生活는 勿論 이러한 補助金 때문에 그 價格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生活必須品을 사용하였던 低所得階層 一般의 生活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生活必須品 중에는 食品이 가장 核心的인 것이었다.

세째, 인플레이션을 賃金上昇이 따라가지 못하여 賃金所得을 주된 所得源으로 하는 低所得層의 實質所得이 떨어지게 되었다. 위의 두가지와 서로 關係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側面이 雇傭機會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함께 所得分配의 惡化를 가져 온 가장 重要한 因子가 되었다.

經濟成長을 하면서 다소 改善되었던 所得分配狀은 成長이 停滯되고 安定化가 추구되면서 惡化되게 되었다. 특히 종래 보장될 것으로 믿어졌던 實質賃金이 떨어지게 되고, 食品 등 生活必須品の 價格이 오르게 되자, 所得分配가 惡化되는 경향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安定化 政策과 더불어 政治社會的 不安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브라질의 상·파울로地域의 勞動者들은 經濟成長이 順調로울 때 經濟全體의 物價調整指數보다 높은 기준으로 賃金이 調整되어 인플레이션過程에서도 實質賃金이 相對的으로 上昇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1983년에 들어 이것이 정지되고 實質賃金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곳보다 相對的으로 더 큰 損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 地域에서 한 때에는 하루에 4,5件的 食料品商에 대한 掠奪事件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소득분배의 惡化와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食料不足은 브라질에서 에너지自立을 위해 根幹이 되고 있으며 成功의이라고 평가받는, 휘발유의 알콜로의 代替프로그램까지를 非難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알콜의 原料인 사탕수수의 栽培를 늘이기 위하여 밀의 栽培면적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밀의 공급이 줄고 밀의 價格이 오르게 된 것이 비난되었다.

食料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生存을 위협받는 低所得層이 아닌, 그 위의 中所得層도 安定化로 큰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經濟成長過程에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이 銀行 등으로부터 住宅金融을 받아 상당한 不動產投資를 하였던 바, 賃金이 떨어지고 物價上昇에 따라 基本生活을 위한 支出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住宅融資金의 償還에 있어

서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다. 나아가 많은 家計가 住宅金融의 豫定된 대로의 上환에서 失敗하게 되자, 이러한 金融을 淸급하였던 金融機關도 곤경에 빠지게 되어 金融機構 全體가 어려움을 맞게도 되었다.

IV. 各國 緊縮政策의 相對的 效率性

이상 南美의 外債三國이 걸어온 길을 살펴 볼 때, 이들은 아르헨티나에서의 一時的 例外를 除外하면 원칙적으로 自由變動換率制度를 택하고 모든 것을 市場의 自由로운 活動에 위양하는 方式보다는 漸進的 方式을 취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소위 構造論者들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經濟가 각종 歪曲과 二重性을 지니고 있어 급격한 市場經濟化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들의 이와 같은 漸進的인 接近은 共感될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이들도 外債償還의 어려움에 당면하여 緊縮을 강요당하게 됨에 즈음하여서는 그 이전보다 強度깊고 신속한 政策的 對應을 하게 되는 데, 이들 중에는 브라질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보다 다소 漸進的인 政策的 適應의 길을 취해 왔다고 判斷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이들 나라가 처한 처지로부터 類推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브라질과 멕시코가 모두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취해 오면서 外債를 도입하다가 外債償還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되었으나, 멕시코의 支出의 過多한 정도가 브라질보다 컸기 때문에 멕시코가 브라질보다 먼저 上환유예의 요구를 表明하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IMF로부터 요구된 緊縮의 強度도 컸다. 또 멕시코 보다는 브라질의 天然資源이 더 多邊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브라질로 하여금 보다 漸進的인 方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要因이 되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930年代 이후의 經濟成長의 停滯와 政府의 지나친 干與에 대한 反動으로서, 南美의 複合性을 지닌 經濟에게는 반드시 妥當하다고 볼 수 없는, 教科書的 市場經濟의 處方을 따랐다. 그리고 이 方式의 反動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率과 낮은 經濟成長率을 통해 볼 수 있듯이, 三國中 가장 不適合한 安定化의 樣態를 보여 왔다.

이들 三國은 또한 國際收支의 改善을 위해 吸收를 減縮해 보려는, 經濟 全體를 염두에 둔 接近方法 보다는, 직접 貿易收支의 改善을 꾀해 보려는, 經濟의 一部分인 貿易部門에 重點을 둔 接近方法을 택했다.

이것은 이들이 모두 IMF의 緊縮壓力에 따라 우선 輸入을 줄이고 輸出을 늘이려고 한 때

문이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經濟成長이 정체되고 所得分配이 惡化되는 것을 財政支出의 擴大를 통해 部分的으로나마 相殺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財政支出이 增大하게 되고 財政赤字의 縮少 및 解消가 어려워진 것은 二重構造로 특징지워지는 社會에서 政府의 役割이 계속 컸었던 데도 그 原因이 있다.

이들이 輸出을 늘이고 輸入을 抑制하기 위해 취한 가장 主要한 政策은 계속적으로 平價切下를 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은 소위 小規模 平價切下(mini-devaluation)를 통해 큰 반발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平價切下를 할 수 있는 길을 制度化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慣行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비교되면서 시행되는 이러한 小規模 平價切下가 不充分할 때에는 大規模 平價切下를 斷行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輸出競爭力을 위하여 잦은 平價切下를 시행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에서 平價切下를 미리 豫定된 정도에 따라 시행한 때문에, 평가절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해 수출경쟁력을 보장하는 데 失敗하게 되었다는 一般的 認識이 南美諸國에서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또한 이들에게서 平價切下가 얼마나 重視되어 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財政緊縮이 全體로 보아 充分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GNP 對比 財政赤字를 줄여 보려는 努力이 계속 失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財政支出을 줄이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이들 모든 나라에서 緊縮과 더불어 賃金を 物價와 連動시키던 장치가 限定되게 되었고, 특히 公共部門의 雇傭者에 대해서는 賃金減縮의 강도가 컸다. 또 政府豫算에 기인하여 주어지던 각종 補助金을 줄여보려는 努力이 지속되었고, 이중 상당한 것이 實現되었다.

그러나 政府收入을 늘여 보려는 시도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 바, 이는 이들 나라에서 이미 政府의 役割이 컸고 擔稅率이 높았기 때문에 稅制改革이나 稅務行政의 改善을 통하여 租稅收入을 늘일 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단 補助金 減縮의 一還으로서 政府가 제공하고 있던 公共서비스의 料金を 現實化하여 政府收入을 늘이려고 한 것은 限定的이나마 成功하였다.

GNP의 減少, 實質賃金の 下落 등에 따라 民間消費가 떨어져 당연히 吸收가 줄어들게 하는 方法에 대하여 支出減縮을 가져 올 수 있는 方法은 投資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모든 나라에서 緊縮과 더불어 投資의 優先順位를 決定하고 덜 緊急한 投資를 뒤로 미루어는 努力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投資減縮의 努力도 1982년 브라질에서의 議員選舉, 1983년 아르헨티나에서의 大統領選舉 등 政治의 事情에 따라 制限되기도 하였다.

外債國 一般의 고민은 內的, 外的으로 激變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市場에 카니즘을

活用하여 效率性을 가져오게 하는 이른바 經濟自由化 조치를 無理없이 이루고, 이러한 自由化조치와 巨視經濟的 政策運營이 서로 矛盾되지 않게 하느냐 하는 데 있다.

構造主義者들이 示唆하듯이 본래적으로 二重性 내지 歪曲이 많은 經濟에서 經濟自由化를 단행한다는 것은 豫想밖의 結果를 가져 올 危險性 내지 不確實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歪曲이 있는 經濟에 대한 開發化는 그러한 歪曲을 시정하게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歪曲을 造成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內部的으로 市場의 不完全性이 노정되는 社會에서 自由化가 最善의 方策(the first-best policy)이 된다는 保障은 없으며, 內部的 不完全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市場開發의 順序와 速度가 찾아져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經濟自由化의 예처럼, 교과서적인 通貨主義者의 처방에 따라 內部的 歪曲의 存在를 豫外로 하고 經濟의 모든 部門을 일거에 自由化했다가는 自由化로써 의도한 바를 결코 達成할 수 없게 되기 쉽다.

世界市場이 결코 完全하지 않고 그것이 1970年代와 1980年代처럼 격변하고 있어 모든 나라에게 豫상밖의 충격을 줄 때에는 經濟自由化의 추구는 또 다른 苦痛을 맞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國際經濟與件이 평온한 때 經濟自由化를 추진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巨視經濟政策의 運營을 피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課業을 어떻게 遂行해 나아가야 좋을지에 대해 현재 確실한 指導論理는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外債國은 外債償還을 유예받는 과정에서 緊縮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緊縮政策은 혹은 巨視經濟的 總需要의 減縮의 形態로 나타나고 혹은 經濟自由化의 가속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선택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는 確信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와 關連하여 말할 수 있는 最小限은 巨視經濟的 政策運營과 經濟自由化의 追求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아야 하며, 일단 서로 相合하는 內容으로 決定되면 그것이 一般 國民의 信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지탱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정도이다.

V. 韓國經濟에 대한 敎訓

世界 第四位의 外債開途國인 韓國經濟가 이상에서 고려한 南美 外債國의 經驗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敎훈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大답을 찾으려 함에 있어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들 南美 外債三國과 달리 韓國經濟는 아직 債務調整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격변하는 國際經濟

의 與件이 모든 나라에 대해 共通的인 것이고 1960年代와 1970年代에 外資에 의한 經濟成長을 꾀해 온 것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韓國이 同一한 것이나, 이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은 公式的 債務調整을 해야 할 必要를 맞지는 않았다. 勿論 우리나라도 IMF와 待期性 借款을 교섭하면서 채무조정시 권고받는 것과 비슷한 緊縮의 追求를 요구받기는 하였다.

이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채무조정의 必要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國際的 調整努力의 相對的 優秀性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고, 이들과 우리나라의 努力의 差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첫째, 國際收支調整의 方案으로서 직접 貿易收支의 改善을 目的으로 하고 輸出을 增大시키려고 하면서 輸入을 抑制하는 것과 吸收를 줄이는 것을 비교해 볼 때, 貿易收支의 各各 改善을 위해서는 前者가 나은 方途이나, 前者는 財政支出의 增大 또는 財政支出 抑制의 失敗를 가져 올 可能性을 가지고 있어 後者보다 非能率의 일 수도 있다. 이것은 貿易黑字의 크기보다 財政의 크기가 크면 클 수록 더욱 그러하리라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南美諸國에서는 財政赤字를 가지는 데 상대적으로 自由스러웠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지난 십수년간에는 財政赤字를 最小化하고 經濟成長에 따라 늘어나는 財政收入의 범위내에서 財政支出을 限定시켜 보려는 努力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또 財政赤字에 대해 이렇게 인식이 상이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所得分配狀이 南美 外債國의 그것보다 良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보다 南美 外債國에서 所得分配가 惡化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더욱 積極적이었다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둘째, 緊縮에 따라 所得分配가 크게 나빠지고 政治社會的으로 不安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갑자기 심하게 강행되어서는 아니 되고 과거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서서히 집행되어야 한다. 또 건축에 따르는 負擔을 經濟社會의 여러 部分이 골고루 分擔하도록 하기 위해서 總需要의 構成因子인 貿易收支差, 財政支出, 消費支出, 投資支出이 모두 상응하게 줄도록 되어야 한다. 低所得階層의 消費支出만이 줄어드는 것이 되거나 輸入抑制가 總需要 減少의 大部分을 차지하게끔 되어서는 아니 되며, 財政支出도 줄고 投資支出도 減縮되게끔 되어야 한다. 특히 投資支出의 減縮과 관련하여 國際經濟與件과 國內經濟狀況 및 投資事業에 관련된 技術을 감안하여, 非生産的 投資가 회피되어야 함은 勿論 資金코스트와 비교해 短期的으로 收益을 實現하지 못할 것은 延期되어야 한다. 반면에, 지나친 輸入抑制로 中小企業에 의한 日常的 投資가 不可能하게 되거나 지체될 가능성도 최소화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巨視經濟的 政策運營과 經濟自由화가 서로 矛盾되지 않게끔, 특히 經濟自由화가

신중히 시행되어야 한다. 巨視經濟政策의 運營은 그 本質上 機動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國際經濟與件의 變化와 國內의 景氣變動에 대해 신속성있게 動員될 수 있다. 그러나 經濟自由化 조치는 한번 단행되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다소 어려운, 一種의 不可逆性을 띠고 있다. 때문에 經濟自由化 조치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과감한 실험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經濟自由化의 일종인 貿易自由化를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가진 브라질, 멕시코 등과 우리나라가 限定的이나마 이미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貿易自由化 중 특히 輸出自由化에 積極적이었으며, 輸入自由化의 추진도 상당하였다. 그러다가 外債償還을 위한 緊縮의 必要와 더불어 輸入自由化가 다소 후퇴해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면 經濟自由化의 다른 種類인 資本自由化에 대해서는 브라질이나 우리나라가 모두 제법 신중성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는 1984년에 들어서 資本自由化를 위한 몇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資本自由化가, 아르헨티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金融部門을 더욱 二重의이 되게 하고 投機를 助長하여 生産의 投資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資本自由化를 단행하더라도 여러가지 段階로 나누어 充分한 시간을 가지고 앞 段階의 成果를 일일이 檢討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貿易自由化, 특히 輸出自由化가 可視적이고 國內에서의 歪曲을 除去하거나 縮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資本自由化는 훨씬 덜 可視적이어서 그것이 어떠한 效果를 가져 오는지를 미처 識知하기 이전에 豫想外의 영향력을 발휘할 염려가 있다. 또 그것은 二重經濟社會에서는 새로운 歪曲을 達成하거나 기존의 歪曲을 팽창시킬 可能性이 크다. 때문에 긴축의 시행에는 經濟自由化를 주된 手段으로 해서는 안되고, 巨視經濟政策의 運營에 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安全한 方途라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A. 定刊物

South

CEPAL

Euromoney

Economist

『産業と經營』

*World Financial Market**International Capital Market***B. 單行本 及 論文**

- J. Altmann (1985), "The Borrowing Crisis: Who Bears the Burden of Adjustment?," *Economics*, Vol. 30, Institute for Scientific Cooperation, Tübingen.
- American Express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 (1984), *International Debt: Banks and the LPCs*, The AMEX Bank Review Special Paper No. 1.
- M. Bienefeld & M. Godfrey (eds.) (1982), *The Struggle for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Ltd.
- W. Cline (1983), *International Debt and the Stability of World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 Cline (1984), *International Debt: Systematic Risk and Policy Respons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W. Cline & S. Weintraub (eds.) (1981), *Economic Stabi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Institution.
- R. Dale and R. Mattione (1983), "Managing Global Debt," A Staff Paper, Brookings Institution.
- C. Diaz-Alejandro (1984), "Latin American Debt: I Don't Think We Are in Kansas Anymo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 R. Dornbusch & S. Fischer (1984), "Studies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ssue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UNDP/UNCTAD Project INT/81/046.
- S. Edward (1984), "The Order of Liberalization of Extern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156.
- D. McDonald, "Debt Capacity and Developing Country Borrowing: A Survey of Literature," *IMF Staff Papers*.
- T. Phalle (1983),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 Opportunity for Constructive Action," *CSIS*, Georgetown Univ.
- J. Sachs (1981), "LDC Debt in the 1980s; Risk and Reforms," *NBER Working Paper*, No. 861.
- J. Sachs (1984), "Theoretical Issue in International Borrowing," *Princeton Studie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54, July.

L. Sjaastad (1983), "International Debt Quagmire—To Whom Do We Owe It?," *The World Economy*.

L. Talyer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ing Country Debt: An Informal Guide for the Perplexed," *Journal of Development Planning*.

E. Wiesner (1985), "Latin American Debt: Lessons and Pending Issu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松岡潔編 (1981), 『發展途上國の債務累積問題』, アジア經濟研究所.

竹内一郎・香西泰編 (1984), 『國際金融不安』, 有斐閣.